

“반성없는 보훈처장 업무보고 말고 사퇴하라”

박승춘 “사퇴 생각없어”... 야당 거부에 정무위 보고 못해 농해수위,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놓고 공방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고도 야당의 거부로 업무 보고를 하지 못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인 전해철·김관영 의원의 반대로 입을 떼지 못했다. 전 의원은 “3번째 해임추구안이 발의됐음에도 반성이 없는 보훈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장은 업무보고 보다는 차라리 사퇴를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 업무보고는 최완근 보훈처 차장에게 넘어갔으나 최 차장이 준비돼 있지 않아 결국 서면보고로 대체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박 보훈처장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박 처장은 회의장에 남았다.

박 처장은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저는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박 처장은 이어 해임추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경우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질문에도 “국회가 해임(추구)결의안을 냈지만 많은 국민의 생각은 국회와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파행했다. 이날 복지위는 총 11개 법안을 상정, 여야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세누리당은 표면적으로 “법안 상정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면에는 상정된 상당수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시행 우선’인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위는 당분간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야당과 당국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특조위 실제 활동 시점이 법정 활동 기간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

개월이 지난 오는 30일까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치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점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인양 시점이 우리가 예상하고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선제조사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에 위원 임기가 2015년 1월 1일 시작한다고 부처에 정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승춘 보훈처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최완근 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날 보훈처의 업무보고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박 보훈처장이 하지 못했고 결국 서면으로 대체됐다. /연합뉴스

내달 광주서 ‘사회적경제 박람회’ 열린다

1~3일 DJ센터

사회적기업 체험 계기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공사례를 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광주에 모인다.

광주시는 다음달 1~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내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인 다음달 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정부 포상 등을 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 타운미팅’,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등이 열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사 기간에는 시민이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의 투자유치 사례를 듣고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대회 시상식 및 시민투자 오디션’, ‘문화예술 페스티벌’, 학술대회, 경기대회도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상품, 서비스 전시 외 사회적기업들의 공연, 제품 만들기 체험, 박람회 체험 후기 공모,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축제의 장일 뿐 아니라 국민이 사회적기업을 체험하고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보인 양적 성장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기석 의원 1호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서구 갑)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제계약을 요구할 때 경

신 요구 당시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권리 강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장에 임명규 의원 ...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부의장 권욱·이장석 ...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연기 가능성

제10대 하반기 전남도의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이 28일 마무리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원 58명 중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10대 하반기 도의회 의장(1명)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7명) 등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선 임명규(보성 2·국민의당) 의원이 선출됐다. 또 부의장엔 국민의당 권욱(목포 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석(영광 2)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보성 출신인 신임 임 의장은 “전남도의회 의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 보좌관제 도입,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등에 전력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의장은 광주대를 졸업한 뒤 별교농협 제9·10대 조합장, 민주중 중앙당 대의원, 제9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

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마쳤다. 의회위원장에는 더민주 박철홍(담양 1), 기획행정위원장은 더민주 서동욱(순천 3),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국민의당 배중범(목포 5) 의원이 당선됐다.

또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더민주 김연일(영암 2),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더민주 김기태(순천 1),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더민주 정연선(신안 2), 교육위원장은 국민의당 광억제(강진 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새 지도부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평균 연령이 60세에서 56세로 확 낮아

인 더민주(33명)와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양당체제로 재편된 하반기 광주시의회 원 구성도 관심이다. 다음달 8일 선출 예정인 하반기 의장 후보는 더민주 조오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병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 등 의석수로는 더민주가 우위지만, 의원들 간 친소관계 탓에 일부 이탈 조짐이 감지되면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른바 ‘교향선 출방식’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사전 등록제’ 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민주 측이 ‘국회식 배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장직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자 의석 수에 따른 국회식 배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장을 더민주가 맡고, 부의장·상임위원직을 나눠 갖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명규 의장 권욱 부의장 이장석 부의장

선관위 “투표연령 인하, 다시 검토할 때”

사전투표 시간연장은 검토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홍희 사무총장은 28일 사전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투표 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가 이른바 실시되는데 첫째 날 오후 8시에 사전투표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후 보관·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라며 “우체국을 통해 다른 지역에

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용지) 우편을 발송해야 하는데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면 우체국 사정과 맞물려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 잠관인의 잠관 아래 우체국을 통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한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현재 ‘만 19세 이상’인 투표 참여연령을 “개인적으로는 다시 검토할 때가 왔지만 생각해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또 과거 20세에 참여연령을 19세로 낮출 때 민법상 성인연령과 같이 가야 한다는 반대도 있었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교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제물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귀에 성

〈귀의 보이지 않는 귀속형 보청기〉
외관모습도 중요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한달 3~4만원!!

둘째, 전부 무료

셋째, 맞춤 귀속형

■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장안본사 0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청원·아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